ESS 보급, 전력망 요금 문제에 발목

<에너지저장장치>

도내 출력 제한·계통 포화 문제 해결 위해 보급 중
한전,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자에게 이용 요금 부과
업계, 요금 부과 반발하며 전기위원회에 재정 신청

도내 출력 제한과 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반이 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이 전력망 이용요금 문제로 발목 잡혔다. 한국전력이 배전망 ESS에 대해 망이용료를 부과하자 도내 사업자들이 요금 납부를 거부하며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배전망 단독형 ESS 사업자들에게 송배전 이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ESS를 발전 고객으로 판단해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충전 단계에 대해 일반 수요 고객과 동일하게 송배전 이용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전망 연계 ESS는 태양광 발전이 몰리는 낮 시간대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늘거나 계통에 여유가 생기는 시간대에 방전하는 설비로, 출력 제한과 계통 접속 대기 문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현재 한전의 이용규정에는 고객 범위를 발전고객과 수요고객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 전력을 소비하는 동시에 공급하는 ESS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ESS의 충전과 방전을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발전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선 2024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배전망 연계 ESS 전기사업 허가를 냈으며 현재 도내 5개소에서 약 6.4MW 규모의 ESS가 가동 중으로 망이용료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배전망 ESS의 망이용료는 1kWh당 20~40원 수준으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월 15%, 6월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한전의 망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도내 배전망 ESS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전기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넣은 상태"라며 "결론이 어느 정도 나야 이후 대응을 결정할 수 있어 현재 납부는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전망 포화지역에 대한 ESS 설치 등 계통 기여도에 따라 요금 부과를 유예하는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과 기준이 나오지 않아 ESS 사업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5586억원을 투입해 약 700MW 규모의 배전망 ESS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며, 곧 2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제주지역도 포함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망이용료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참여를 망설이는 분위기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수요 기준 송전 사용요금 단가가 6.95원/kWh로 비수도권 1.42원의 4.89배, 수도권 2.44원의 2.85배에 달해 같은 규격의 ESS라도 육지부에 비해 큰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오소범기자

도민들 '하늘길 좌석난' 고통 덜까

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
필수항공노선 법안 발의
운임 지원·좌석 우선 배정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도민들에게 항공운임을 지원하고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서귀포시)은 12일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제주와 같이 항공교통 외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다른 지역을 오가기가 현저히 어려운 지역의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운항횟수 또는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와 협정을 체결해 좌석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범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동수단"이라며 "항공노선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제주도민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의 자유와 기회를 제약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대림 의원(제주시갑)도 제주도민들의 항공 이동권 보장과 재정 지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가 제주가 섬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국내 항공노선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항공운임·요금 할인, 환급, 바우처 지급 및 결항·지연 시 이동지원 등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주 국내선 항공 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하반기 '도민로스쿨' 운영
도, 8과목 19개 강좌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2026년 하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한다.

도민로스쿨은 제주도민이 법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생활밀착형 법률교육 프로그램이다. 2024년부터는 제주도민대학과 연계해 평생학습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과정은 A·B·C반으로 나눠 8개 과목, 19개 강좌로 구성됐다. 강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단, 9월 14일은 오후 4~6시, 10월 8일은 오후 3~5시에 운영된다.

수강 신청은 제주도민대학 누리집(https://www.jejudomin.kr/)에서 할 수 있으며, 반별 접수 마감일은 A반 8월 28일, B반 9월 14일, C반 10월 7일까지다.

교육생은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문의 064-726-9851. 이태윤기자

김매기 한창인 도라지밭 12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도라지밭에서 농민들이 김매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폭염에 7월 한라산 탐방객 급감

3만8861명… 전년 72% 수준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 7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공개한 2026년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탐방객은 어리목코스 1만3385명, 영실 9001명, 성판악 1만1531명, 관음사 4759명, 돈내코 185명 등 3만88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5만3756명의 72%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난 2020년 3만412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한라산 탐방객이 줄어든 이유로는 마른 장마 이후 계속된 극심한 폭염이 원인으로 꼽힌다. 제주기상청에 발표한 7월 기후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 폭염일수(일 최고 33℃ 이상인 날의 수)는 6.5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제주 지점의 경우 15일에 이르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탐방을 기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7월까지 한라산 탐방객은 57만3934명이며 코스별로는 영실이 22만6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리목 16만7275명 순이다. 위영석기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이틀 만에 '마감'

계획 물량 1600대… 고유가 등 따라 수요 폭증

제주도와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에 신청이 폭주하며 접수 개시 이틀 만에 목표치를 모두 채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과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5161대를 보급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하반기 승용차 1200대와 화물차 400대 등 모두 16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단 출고 지연이나 구매 중도 포기 등을 고려해 실제 신청은 승용차 1500대, 화물차 500대까지 예비로 받았다.

그러나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신청은 지난 6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500대를 넘어서며 조기 마감했고, 전기승용차 신청도 이틀만인 지난 7일 1500대를 돌파해 더 이상 받지 못했다.

제주도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000대 이상 많은 6800대를 보급하기로 했지만 수요가 공급 규모를 매번 뛰어넘는 등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전기차 수요 급증은 지속된 고유가와 주행거리·성능이 개선된 신형 차종이 대거 출시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 보급된 전기차는 올 7월말 기준 4만9000여대로, 도내 전체 운행 차량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연초 목표를 웃도는 물량이 모두 소진될 만큼 전기차 전환을 향한 도민의 관심이 높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보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주) 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직 원 모 집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과 함께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소 속
관리팀(총무회계)
■ 직 무
총무(구매, 계약 등) 및 회계(전표, 계산서 발행 등)
■ 모집인원
1명(제주도민 우대)
■ 모집기간
2026. 8. 10(월) ~ 8. 14(금)
■ 제출서류
이력서 1부, 경력기술서 1부 (경력자 한함)
■ 제 출 처
youth@booyoung.co.kr
■ 문 의 처
T. 064)760-5711

아름다운 노후! 일하는 노후! 행복한 노후!
제주시니어클럽
「할로마켓 베이커리 카페」
참여자모집

■ 모집분야
· 베이커리 제조 및 판매 · 음료 제조(커피 등)
· 매장 관리 및 고객 응대
■ 모집인원 : 20명
■ 근무장소 :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10, 101호 상가 (마음에온)
■ 신청대상
· 만 60세이상 신체건강한자
· 바리스타 자격증 및 제빵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제외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2개 이상 참여자
■ 신청기간 : 2026. 08. 06(목) ~ 모집인원 마감 시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제주시니어클럽 (방문접수)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구, 상록회관)
■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등
■ 문의전화 : 064-745-3999 (담당 : 임상민 과장)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제주시니어클럽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씽크대 제작 / 붙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